

## 가보기 어려운 DMZ 평화순례 다녀온 후기

2119 정은영

DMZ평화 순례를 다녀오기 위해 전날 밤에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통일교육을 다시 되짚어보며 북한에 대한 나의 자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로써 평화 순례 길을 한 발짝 다가갈 준비를 마쳤다. 당일 날 설레서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철원에 도착하는 순간 북한에 가까이 왔다는게 믿겨지지 않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점심(막국수+수육)을 먹고 나서 정신을 차렸다. 평화순례길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프로그램 코스인 철원 노동당사에 방문하여 노동당사의 역사를 알아보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시간으로 인해 짧은 구경을 하였지만 다같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새겼다. 다음 코스로는 국경선통일학교를 방문하여 정지석 박사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평화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게 되었으며 철원 주민분들의 소망, 다짐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주민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약간 뭉클하기도 했다. 또한 철원중학교 학생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학생들도 평화를 위해 작은 보탬을 주고 있구나 라는걸 느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했다. 이런 활동이 있다면 꼭 참여 할 것이다. 또한 이런 활동으로 학생들도 통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화전망대도 방문했다. 평화전망대를 방문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데 살짝 무서웠지만 풍경을 보니 너무 아름다웠다. 평화 전망대에 방문하여 잠깐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전영숙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을 듣고 쌍안경을 통해서 철원의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껴서 좋았다. 또한 이런 기분을 오랜만에 느껴서 그런지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아 마음이 뭉클했다. 하지만 다같이 와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아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겼다. 그와중에 군인들이 많이 있어서 신기했었다. 그러다 군대 차량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군인들이 보여 같이 찍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약간 신기하면서 군인들과 사진찍는 추억이 생겨 재밌었다. 소이산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소이산은 정지석 박사님과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 소이산은 침묵의 산으로 조용히 올라가며 풍경을 바라보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통일을 기원하며 오르는 곳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점점 침묵이 유지가 안되면서 시끄럽게 올라갔던 것 같다. 이제와서 보니 아쉬웠고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가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다 올라가 보니 포기 했으면 후회했을 풍경들이 크게 펼쳐졌다. 이 풍경들을 보면서 통일을 기원했고 전망대에서 보았던 철원 평야보다 더 크게 가슴에 와 닿았다. 또한 강사님, 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게 마음속 깊이 보여 너무 감사드렸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많은 통일 프로그램이 주최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우리 학교가 통일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보탬이 되는 첫 스타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